구례 '봄꽃 관광' 활짝 피어나다

산수유·벚꽃·지리산 야생화 등 상춘객 지난해보다 8~16%↑ 꽃상품 개발 주력…관광업계 활력

섬진강변 대나무숲길에 야생갓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구례군 제공〉

봄의 전령사로 알려진 산수유꽃을 시작으로 벚꽃과 야생화 등 구례군의 봄꽃 관광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구례군에 따르면 산수유꽃 개화기간 상춘객은 지난해보다 8.0% 증가했고, 벚꽃은 16.5%가 늘었다. 수선화가 피어있는 지리산치즈랜드는 324%가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야생화가 자생하는 지리산에는 한반도 자생식물의 30%인 1526종이 서식한다. 그중에서 구례군은 전국 야생화 생산량의 15.6%를 차지할 만큼 야생화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봄의 전령사로서 남도의 봄 소식을 알리는 산수유꽃이 3월초에 산동면 일원에 장관을 이룬다.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수유꽃은 한달여 동안 꽃을 피운다.

지리산치즈랜드는 3월말부터 푸른 초지, 호수가 조화를 이루며 수선화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일명 '한국의 스위스'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인스타그램을 빛낸 올해의 관광지 4선에 선정된 곳이다.

4월초에는 섬진강을 따라 조성된 300리 벚꽃이 터널이 이루며 장관을 이룬다. 이 길은 전국에서 가장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길로 지리산과 섬진강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벚꽃이 질 무렵에 섬진강변에는 야생갓꽃과 유채꽃이 섬진강대숲길과 어우러져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전국에서 야생화가 가장 많이 자생하고 있는 지리산에서는 4월부터 8월까지 다양한 야생화를 볼 수 있다.

전남에서 유일한 공립수목원인 구례수목원에는 1148종의 13만 그루의 식물이 있으며, 4월부터 야생화 꽃으로 옷을 갈아 입는다.

4월에는 목련, 조팝나무 등 20여종의 야생화를 시작으로 철쭉, 원추리까지 8월까지 평지에서부터 노고단 정상부까지 시기별로 꽃을 피운다.

특히 6월에는 100만송이 수국길이 장관을 이룬다. 약 2㎞의 테마수국은 아나벨수국, 떡갈잎 수국, 미국수국, 산수국, 목수국 등 길, 100여종의 수국이 식재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광동 구례군수 권한대행은 "구례군의 대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코로나 상황에도 전년대비 20%이상 관광객이 증가했으며, 특히 야생화의 본고장인 구례군은 봄꽃으로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꽃을 소재로 관광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운영하겠다"며 "상춘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깨끗한 관광지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주요관광지와 꽃이 연계될 수 있는 상품개발과 함께, SNS사진 공모전, 투어버스 운영, 구례에서 한달 여행하기, 모바일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문화로 행복을 배달합니다"

나주시 '문화행복 배달키움' 4개 프로그램 이달말 운영

나주시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문화행복 배달키움' 사업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나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든 문화소외지역 어린이와 주민에게 영화상영, 전래놀이, 이야기 할머니, 시립예술단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오지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소규모 영상 시설을 설치해 연간 40회가량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를 상영한다.

신나는 전래놀이 배달 사업은 경로당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 보육시설 등에 나주시전래놀이연구회(술래) 전래놀이 지도사가 공동체와 협동의 미덕을 알리는 다양한 전래놀이 체험을 도와준다. 또 나주시가 문화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한 이야기 할머니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아 나주의 옛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화로 풀어낸다.

나주시립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을 하나로 묶은 '나주시립예술단'이 경로시설, 마을회관, 문화센터, 학교 등을 찾아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다. 사전 신청 및 문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업별 추진 업체나 시청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당선작 선정

'다시 반짝이는 별, 고흥'

고흥군은 고흥읍 구도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반짝이는 별, 고흥'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평가 및 설계업체를 최근 ㈜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의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선작은 개방성이 좋고, 공공건축물 특화거리와 연계되어 자연스러운 동선 계획 및 가변적인 공간 조성 계획으로 높은 투표율을 얻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으로 창업육성 공간의 수제 맥주 브루어리(남계리 605번지), 활력 거점 공간의 고흥 커뮤니티 라운지(남계리 576번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의 복합커뮤니티센터(남계리 551-1번지), 주민들의 거점 공간의 고흥 사랑방(남계리 461번지)이 들어서게 된다.

당선작을 바탕으로 오는 5월 용역에 착수해 올해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74억1000만원을 투입해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효율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의 다양한 거점 공간들을 건립함으로써 고흥읍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고흥읍 구도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반짝이는 별, 고흥' 조감도. 〈고흥군 제공〉

순천시, 수입품 압류로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입국시 소지 물품 관세청 위탁 압류

순천시가 관세청에 위탁·의뢰해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품 압류를 추진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절차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121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최근 발송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예고 기한까지 체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선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 대상자로 위탁하게 된다.

이어 관세청은 체납처분 위탁을 받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 처리 후 매각·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위탁 후 명단 공개 당시 금액의 50% 이상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등 세금 납부 기피자에게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유성수 장성군수 예비후보 '청·소·차 캠프' 개소식

유성수〈사진〉장성군수 예비후보가 23일 선거사무소 '청·소·차(청렴하고 소통하며 차별없는) 캠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유성수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장성이 젊어지고 장성을 살맛나게 꼭 만들어 가겠다며 새장성 새군수 새희망을 위해 힘이 되어달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성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대응에 균형있게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출마를 알렸다.

유 예비후보의 핵심공약으로는 ▲군수직속 농민, 소상공인 소득향상 추진단 설치 ▲모든 읍·면 소재지에 도시가스공급 ▲여성활동가 육성 및 장애인 공공 일자리 정책 ▲관광먹거리 정책 등을 내세웠다.

유 예비후보는 장성 터미널 종로약국 약사로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성군 소상공인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 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곡성군,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곡성군이 세금에 대해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사진〉를 최근 펴냈다.

이번 책자는 총 100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됐다. 재산세 등 지방세 법령 관련 내용과 어렵고 복잡한 세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총 10개 목차 45개 항목으로 지방세 관련법 주요 개정 내용은 물론 개인과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제도, 지방세 감면제도 등 유익한 정보로 가득하다. 곡성군은 책자를 지역 내 유관 기관 등에 먼저 배부하고, 25일부터 각 읍면 사무소 및 군청 민원실, 재무과 등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책자 발간을 통해 지방자치의 핵심 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납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 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